

중구, 제물포구 자치법규

제정 위한 1차 입법예고 진행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올해 7월 신설될 '제물포구' 운영의 행정적·법적 근거인 '제물포구 자치법규(조례·규칙)' 안(案)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으로 올해 7월 1일부로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출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구와 동구는 양 구의 기존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제물포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구는 첫 번째 단계로 제물포구의 행정·복지·환경·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자치법규 안에 대해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1차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제물포구 자치법규 안에는 조례안 348건, 규칙안 63건 총 411건이 담겼다.

시민,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에 중구 누리집에서 이번 자치법규 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자치법규 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중구와 동구의 행정·복지 등의 통합을 담은 자치법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동구,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 부여

남동구는 의료인이나 교육자인 가천 이길여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의 명예도로명 부여 신청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협의,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4일 최종적으로 명예도로명이 부여됐다.

지정된 구간은 가천대 길병원 및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일대(남동대로 755-792 및 남동대로 774번길 1-30) 총 530m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를 기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5년간 유지된 후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이길여 박사는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사부인과 과를 개원한 이래, 국내 여의사 최초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 초음파기기 도입, 병원 전산화 추진, 닥터헬기 및 권역 외상센터 운영, 인공지능 왓슨 도입 등 인천시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의료 활동 외에도 교육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박애, 봉사, 애국의 삶을 실천해 온 이길여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대학생 복지 든든히 챙긴다

유정복 시장, 직접 배식·학생 의견 청취 체감도 높이는 현장 중심 행보

12개 대학 19만 명 대상 운영, 지역 쌀 23톤 활용해 농산물 소비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역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과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점검하며, 학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 갔다.

유정복 시장은 3월 2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사업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천지역 대학 재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식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는 아침식사 제공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배식대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식단 구성과 이용 편의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에는 관내 11개 대학에서 약 22만 명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했다.

2026년에는 재능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해 모두 12개 대학*에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쌀 약 23톤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참여 대학: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인천), 연세대학교(국제), 청운대학교(인천), 가천대학교(메디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 재능대학교

유정복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50만 원 이상의 질병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질병치료 의료비를 환산해 선정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하린 기자

2026년 '계양실버농장' 개장식 개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어르신 481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실버농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실버농장을 분양받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텃밭 추천과 운영 교육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계양실버농장'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대표적인 어르신 여가·힐링 사업으로, 구는 수요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2023년부터는 기존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오류동 102-9번지 유희부지(1,038㎡)를 추가로 조성해 참여 기

를 한층 넓혔다. 올해 실버농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850명의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481명을 최종 선정했다.

실버농장은 11월까지 운영되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농기구 대여와 농장 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실버농장은 수요에 맞춰 권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본격화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를 위해 모범 사례로 꼽히는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요양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벤치마킹 대상인 진천군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전국 대상상을 수상했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발된 바 있다.

강화군은 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찾아 ▲통합돌봄 추진체계 ▲민·관 협력 운영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재가 중심 서비스 연계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사례에 주목했다.

군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진천군의 우수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강화군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에 맞게 재설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도리 팔각정 환경정비 및 보수작업



웅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모도리 일원에 위치한 팔각정에 대한 환경정비 및 보수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3월 28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북도면 일자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팔각정 주변 환경 정비와 함께 노후 시설물 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노후 된 팔각정의 외관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

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관 개선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고수영 면장은 "이번 보수작업은 공항일자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도면은 향후에도 지역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웅진군은 26일 웅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11기 웅진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신입생 45명의 교육과정 시작을 알렸다. 웅진군농업대학은 2013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4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 대상 4월 온라인 진로 특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4월 7일과 9일,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4월 온라인 진로특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진로 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어 진로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학생·학부모 4월 온라인 진로 특강		
진로 특강	4월 7일(수) 19:00 - 19:50	자율적 진로 탐색 방법
학부모 특강	4월 9일(금) 19:00 - 19:50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진로

구체적인 일정으로 4월 7일 진행되는 학생 대상 특강은 초등학생을 위한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이야기'와 중학생을 위한 자유학기제 연계 '자기주도학습법 및 진로 설계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어 4월 9일 운영되는 학부모 대상 특강은 초등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진로 설계 방법과 중·고등 학부모를 위한 가정 내 학습 지원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학생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